

너 잘되라고 때리지 미워서 때리나?

For Your Own Good: Korean Mothers' Attitudes Towards Disciplining Their Children

김 시 혜*

Kim, Shi Hae

정 순 화**

Chung, Soon Hwa

ABSTRACT

Researchers examine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periences and the way that their mothers scolded them. In their writings, the children reported that their mothers under-estimated them, and assumed that they were not able to do anything by themselves. This reflected on the way that the mothers disciplined their children. The mothers were not a good model of proper behavior and did not treat the siblings fairly. The mothers were directive and valued results over effort. The children confessed that they felt suicidal, miserable and wanted to run away from home. They had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They had to hide their real feelings and show love and respect towards their mothers. They had conflicts in dealing with these feelings. Their inability to show their real feelings and their dependency on their mothers made them return home, much like a boomerang. As a result, the children learned how to respond quickly in avoiding scolding situations. Furthermore, they learned the most important lesson; that it is all right to be abusive as long as it is for their or anybody else's own good.

I. 서 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능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으뜸가는 것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아버지보다는, 바로 그러한 어머니가 계셨기에 그러한 위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써 그들의 어머니를 더 잘 알고 있다. '애미 잃은 날이 애비 정떼는 날'이라는 옛 속담(유안진,

*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강사

** 고려대 가정교육과 강사

1994)도 바로 이러한 양육에서의 어머니의 주된 역할 뿐만아니라, 어머니가 존재함으로써 아버지와 아이들간의 애정적인 관계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밝해주고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는 동일하다. 많은 동물들이 위험상황에 직면하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출산 직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제공하는 동물들도 허다하다. 이처럼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거의 본능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어버이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어머니날이 있었고, 아버지 은혜라는 동요는 없어도 어머니 은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동요라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양육에서의 어머니의 절대성에 대한 관점은 다소 수정되었으나,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절대적인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결과는 이러한 어머니의 존재는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 정서, 신체 등의 여러 영역의 발달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와 아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은 아이들이 주변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아이들의 지각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아이 자신의 지각이 발달의 중요한 변수라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을 통해 그들이 본 어머니의 모습을 파악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잣대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Spradly, 1979). 그리고 현

상학적 방법은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김시혜, 199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5학년 여아가 쓴 아래의 글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른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때로는 친구처럼 내겐 베풀목이 되주었던 엄마였는데…

마치 가면을 쓴것 같다.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마저도 듦다.

이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라는 것도 알지만.

철이든 지금도 난 엄마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쓴다.

연필로 쓴 잘못된 글씨를.

내 글씨같지 않은 그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려고 몸부림친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불을 푹 덮어쓴다.

그럼,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하지만 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라는 두글자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아이는 야단칠 때의 어머니의 모습을 가면을 쓴 것 같고 엄마가 아닌 것 같은 생각까지 듦다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육적이고 온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아이는 어머니를 낯선 이방인처럼 표현하고 있다.

“신이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키 어려워 어머니를 만들었다(Arnold, 1974).”는 말처럼 어머니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아이에게는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엄마는 항상 신의 모습을 갖춘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갈등을 통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과 같이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지적한 이 작은 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부분, 그것이 비록 어머니의 모습에서 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에 대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작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비롯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처음 이 글을 대했을 때 5학년 아이가 쓴 것 같지 않고 어디서 배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도 바로 우리 부모세대들이 아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상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제공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분명히 부모로서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양육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한다면, 이 또한 진정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부모세대들은 아이들에게 혼히 지금이 일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한다. 아무 걱정없이 부모가 해주는 밥먹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한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모대학 수석합격

생의 저서(장승수, 1997)를 인용하면서 이처럼 불우한 환경에서도 대학을 수석합격으로 들어갔고, 그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부처럼 쉬운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이 일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공부가 그렇게 쉽지만도 않다.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어머니와 아이들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야단칠 때의 어머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야단칠 때의 어머니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변화되어야 할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야단칠 때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을 통해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이에 근거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분석해보고, 이를 근거로 수정되어야 할 어머니의 훈육방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자료수집 및 해석과정

1. 자료수집

1) 예비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일차로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위치한 아동학원을 중심으로 60명의 초등학교 아동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1997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학원을 방문하여 수업이 진행

되는 옆방에서 3-4명의 아동을 한 조로 하여 먼저 간단한 배경변인을 기록한 다음,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평소의 느낌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한편의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60편의 글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글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대로 쓴 솔직한 글이라기보다는〈예 1〉에 제시된 것처럼 책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예 2〉에서처럼 비록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쓴 글 때문에 교사나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이를 미화시키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예 1〉

세상에서 가장 큰 건 어머님의 은혜.

우주가 넓다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훨씬 넓어요.
어머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2〉

우리 어머니는 날 좋아하신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참 감사한 분이다. 하지만 화나거나 때리시면 엄마가 정말 싫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엄마, 미워.'하지만 나는 엄마가 좋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나 머리를 써서 만드는 흉내내는 글이 아니라 아이들이 솔직하게 써 놓은 글만이 그것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아이들의 마음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고 본다. 이오덕(1997)은 거짓말 투성이의 머리로 꾸며 만들어 낸 글을 글짓기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정직하고 진실한 감정과 느낌이 반영된 글을 글쓰기라고 했다. 글짓기는 판에 박혀있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강요된 글이며, 아예 뚝살당할 글이나 누가 보면 흥보는 글은 쓰지 않는 것이라면, 글쓰기는 아이가 글을 쓰는 주체이며 창조자로서, 글 자체가 아이의 삶에 밀착되어 있고, 이러한 글쓰기는 아이의 삶을 가꾸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외적으로 관련된 이론이나 개념 등에 의해 경험을 설명하거나 기술하기보다는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글쓰기 자료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질적 자료의 주요 출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오덕(1997)의 글짓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에 근거해 아이들의 글을 분석해 본 결과, 글의 내용 가운데 야단치고 꾸중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예 3〉과 같은 표현이 이러한 글쓰기의 관점과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이차적인 자료수집을 하였다.

〈예 3〉

어머니와 선생님은 꼭 형제같다. 말투도 비슷. 꾸중도 비슷.

어머니와 선생님은 쌍둥이 같아. 한자는 했니. 일기는 썼니.

성격도 비슷. 외모도 비슷. 학교가도 집같고. 집을 가도 학교같고.

어머니는 산수해라. 영어해라.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다.

2) 본 자료수집

본 자료수집은 1997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119명의 신도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의 특성상 현상학

과목을 수강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직접 자신의 학급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어머니에게 애 닫맞은 경험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혹은 편지를 쓰듯이 솔직하게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수집된 119개(4학년;38명, 5학년;47명, 6학년; 34명)의 자료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글쓰기의 관점에 부합되는 98편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98편의 글쓰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해석이 이루어졌다.

2. 자료의 해석과정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자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술하고 연구자는 기술된 자료를 토대로 현상 안에 나타난 어떠한 법칙이나 구조를 찾게 되는데, 이는 현상학이 단순한 현상의 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구조적 의미를 찾는 데 그 촛점을 있다는 것이다. 즉 연구대상자의 전반영적 체험을 연구자는 반영적 태도로 그 안에 있는 구조적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해석단계는 정해진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이나 연구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글들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해석하였다.

1) 1단계

먼저 우리는 연구자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히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읽고, 이를 통해 자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개인적, 심리적, 역사적 지평을 가지고 대했으나 아직은 해석보다는 자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촛점을 두었다.

2) 2단계

2단계에서는 자료를 다시 읽어 각 문단 안에 나타난 의미의 단위를 찾아보았다. 동시에 자료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골라 각 문단 옆 여백에 기록해 두었다. 각 문단 안에 있는 가장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을 찾는 것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닌, 개인의 판단과 능력에 좌우되므로 우리는 같은 글을 혼자서 혹은 같이 읽어감으로써 해석과정에서의 신뢰도를 보완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통적 의미의 신뢰도와는 달리 측정, 관찰, 해석 등이 똑같이 반복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해석과정상의 신뢰도도 일관성있게 반복되는 정도치가 아니라 같은 자료에 대한 편중되지 않은 시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동학을 전공한 두 연구자 각자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심리적, 역사적, 문화적 시각을 서로 보태어 자료의 내용을 가능한 그것을 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읽도록 유의하였다.

3) 3단계

앞 단계에서 찾아진 의미단위들을 모아 우리는 하나의 심상 지도(mind-map)를 만들어 보았다. 아이들이 쓴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는 의미단위들을 중심으로 이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와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축된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연구자들의 언어로 전환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시에 연구자의 시각으로 해석이 이루어졌다.

4) 4단계

4단계에서는 각 의미단위들을 서로 관계있는 것끼리 묶고, 아이들이 원래 글쓴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현상학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방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선정된 여러 개의 주제는 유사한 주제끼리 보다 큰 몇 개의 유형으로 묶어 보았다.

5) 5단계

5단계에서는 몇 개의 유형과 이에 속한 주제별로 아이들의 글을 해석하고 논의하였다. 현상학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특히 중시하므로, 자료의 해석 및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이나 서구의 자녀교육관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글감이 주는 분위기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철자법이 틀린 것이나 어법이 틀린 것, 문자화하기 어려운 과격한 표현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였다.

III. 자료의 해석

해석과정에서 선별된 여러 주제와 이를 가운데 유사한 주제들을 포함하는 몇 개의 유형을 살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글쓰기 자료의 유형별 주제〉

유 형	주 제
아이 자신을 보는	엄마의 잔소리(5)
어머니의 기본적 시각	밤새도록 혼났다(3) 무설명(5) 무경청(3) 무반응(3)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해도(4) 감정 무시(2) 치마입지 말라고(1)
어머니의 훈육태도	때리지 말라면서 때리는 엄마(5) 소리지르지 말라면서 소리지르는 엄마(1) 비교하지 말라면서 비교하는 엄마(2) TV보지 말라면서 TV보는 엄마(1)
불공평	불공평(6)
어른답지 못함	나가라고 하는 엄마(4) 고자질하는 엄마(1) 잘못과 무관한 별을 주는 엄마(1)
일방적	학교수업 끝나고 재능아반 갔다가(4) 평균 95점이 넘어야 한다며(3)
노력보다 결과	노력보다 결과(7)
아이의 반응	밉고 싫다(6) 무섭다(2) 머리가 텅 빈다(5)

아이의 반응

비참하다(8)
 집나가고 싶다(2)
 죽고 싶다(3)
 충전기와 충전지(5)
 홀륭한 사람되어(3)
 갈등(8)
 부메랑(4)
 용서를 빈다(4)
 건딜면 때린다(4)

희망사항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3)
 내 잘못은 내가 안다(4)
 엄마가 고칠 점(7)

()안의 숫자는 주제별 빈도를 나타냄.

1. 아이 자신을 보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시각

엄마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리가 없고 둘봐줘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잔소리〉로 표현된다. 또한 한번 혼내면 짧게 끝나지 않고 〈밤새도록 혼났다〉로 표현되지만, 정작 아이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아이말을 듣지도 않는 〈무설명〉 〈무경청〉의 태도로 일관한다. 아이는 엄마의 꾸중이나 야단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해서도 안되는 〈무반응〉의 존재이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해도〉 무조건 맞는 존재이다. 그리고 아이를 과소평가하는 엄마는 아이의 〈감정 무시〉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영원히 내 아이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녀티가 난다고 〈치마입지 말라고〉 한다.

〈엄마의 잔소리〉

“내가 라면을 먹고 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내가 상을 엎어서 라면 국물이 쓰다져 버린거야. ‘난 이제 클났다’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걸레를 들고 빡빡 딱았어. 난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방을 딱았어.”(글 7)
 “방청소를 안했다고 30분 동안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글 13)
 “엄마의 잔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글 1)
 “한때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글 2)
 “넌 왜 행동이 느리니, 공부 좀 해라, 시험 좀 잘 보라고 나를 때리거나 구박하거나 잔소리를 한다.”(글 84)

아이들은 엄마의 야단이나 꾸중을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라고 했다. 엄마는 아이가 모르고 있다 고 생각하고 길게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나,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하니 잔소리라고 받아들였다. 이미 ‘클났다’라고 생각해서 걸레로 방을 닦고 있는데 계속 잘못을 지적하니 아이에게는 잔소리가 되어 버렸다. 방청소를 하라는 한마디로 충분할 것을 반복해서 길게 30분 동안이나 한다. 그래서 엄마의 말은 잔소리로 받아들여졌다.

〈밤새도록 혼났다〉

“거짓말을 했다고 엄마께 혼난 적이 있다. 아빠한테도 꾸중을 들었다. 계속 밤새도록 혼났다.”(글 64)

“그런데 명이 들게 맞았거든.”(글 29)

“때리실 때는 가끔씩 총채 플라스틱으로 때리신다. 그리고 나면 핏멍이 들곤 한다.”(글 56)

잔소리뿐만 아니라 한번 혼을 내면 길게 밤새도록 혼내고 명이 들도록 때린다. 아이 스스로 잘못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혼낼 때도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밤새도록 혼내고 때릴 때도 명이 들게 때린다. 그래야 알아듣는다고 생각한다.

〈무설명〉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도 나를 벌주시고 매로 맞았어.”(글 24)

“야단을 맞아야하는 이유는 뭘가?”(글 82)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를 때 너무 속상하다.”(글 90)

“난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신경질만 부리고.”(글 1)

“동생을 혼내면 나한테 화풀이를, 내가 혼나면 동생에게 화풀이를.”(글 113)

어머니는 때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왜 매를 맞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은 속상하다고 했다.

〈무경청〉

“엄마는 내 얘기는 들을 필요더 없다는 듯이 엄마의 주장만 강요하고 무조건 혼내기만 한다.”(글 47)

“나의 이야기는 하나도 만들으시고 야단만 치셨다.”(글 56)

“남의 이야기도 듣지않고 무작정 때리고 그런거 난 싫다.”(글 99)

아이는 맞는 이유도 모르지만, 잘못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해도 어머니는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미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아이의 잘못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해도 들을 필요도 없다는듯이 무조건 혼내고 때린다.

〈무반응〉

“또 운다고 혼내는거 있지?”(글 1)

“아파서 울면 왜우냐고 또 때린다.”(글 55)

“내가 울면 왜우냐고 하며 더 혼이 납니다.”(글 69)

매맞기 전에 맞는 이유도 모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해도 들어주지도 않지만 맞은 후에도 어떤 반응도 보여서는 안된다. 엄마에게 맞고 아파서 울면 운다고 때리고, 또 이유를 들어주기는 커녕 혼난 것이 억울해서 우는 아이를 더 혼내고 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해도〉

“내가 사실대로 말했더니 나를 꾸중하면서 매를 가지고 나를 때렸다.”(글 51)

“끝까지 거짓말을 했지. 하지만 끝내 들켰어. 어머니께선 돈은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정말 후회했어. 말을 하면 더 혼날 것 같았어.”(글 100)

“너무 억울해서 엄마에게 말하면 더 맞을 때도 있고(왜 엄마에게 따지냐고).”(글 105)

“나를 막 때리시며 오해를 하셨다. 난 아닌데도

어렸을때부터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글 35)

사실을 말해도 맞고, 따진다고 더 맞고, 거짓말을 해도 맞는다. 무조건 맞는다. 아이는 거짓말을 왜 했는지 후회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진실을 말하면 더 혼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감정 무시〉

“자기 방에서 안자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잔다고 혼이 납니다. 전 지금까지 할머니와 같이 자서 혼자 자려고 하면 무섭고 자꾸 귀신이야기가 떠오릅니다.”(글 69)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께서 한손에 봉동이를 들고 계셨어. 그 순간 잘못했다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라 어머니께서는 그런 생각도 모르신채 나를 때리셨어.”(글 23)

또한 엄마는 아이의 감정이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어둠에 대한 공포, 그래서 혼자 자려고 하면 무서운 아이의 감정을 어머니는 이해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잘못을 깨달은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엄마는 때리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치마입지 말라고〉

“치마를 그만 입고 다니라고 하셨어. 내가 뭐 처녀티가 난다고 하셨어.”(글 2)

혼자 안잔다고 혼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히 내 아이로 잡아두고 싶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치마를 입지 못하게 한다. 성장해서 이미 처녀티가 나는 아이를 치마만 입지 않으면 계속 아이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원히 나의 가

로침을 받아야 하는 아이로 남겨 두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2. 어머니의 훈육태도

이러한 어머니의 시각은 아이의 잘못을 벌주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우선 어머니는 모범이 되지 못하고, 〈때리지 말라면서 때리는 엄마〉 〈소리지르지 말라면서 소리지르는 엄마〉 〈비교하지 말라면서 비교하는 엄마〉 〈TV보지 말라면서 TV보는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형제간의 문제에서 불공평하며, 〈무책임한 엄마〉 〈고자질하는 엄마〉 〈잘못과 무관한 벌을 주는 엄마〉와 같은 어른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학교수업 끝나고 교육청 재능아반 갔다가〉 〈95점은 넘어야 한다〉와 같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며, 잘못한 것은 외형적인 결과로 평가되므로 〈노력보다는 결과〉가 중시된다.

1) 모범이 되지 못하는 엄마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야단치는 어머니는 정작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때리지 말라면서 때리는 엄마〉

“며칠 전에 동생이 개겨서 드럽게 팬적이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다.”(글 33)
 “내가 저번에 동생 때렸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파리채 가주고 생지랄을 떠들면서 내보고 야 이새끼야 니하고 등지도 작은데 그렇게 때려서야 되겠나하면서 화김에 욕을 퍼부었다.”(글 26)
 “왜 너희들은 양보도 할줄 모르고 왜 매일 싸워. 하자 엄마가 우리들을 데리고 나가서 마구 때리셨다.”(글 45)

“2학년때 어떤 동생이 놀려서 때렸더니 엄마는 나만 때린다.”(글 55)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던 꼬마 여자아이들이 나한테 옥을 했다. 그래서 때릴려고 하다가 여자꼬마아이들이어서 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또 흙을 뿐렸다. 나는 머리에 흙이 많이 들어가 여자아이를 때렸다.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혼이 났다. 어떻게 혼이 났느냐하면 엉덩이와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글 65)

〈소리지르지 말라면서 소리지르는 엄마〉

“단소가 망가질까봐 하지말라고 소리질렀더니 엄마께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야단맞았다.”(글 5)

〈비교하지 말라면서 비교하는 엄마〉

“야단을 치실 때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시면서 나보로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신다.”(글 57)

“엄마는 옛날에 문제집을 하루에 다했다고 야단치면서 때린다.”(글 70)

〈TV보지 말라면서 TV보는 엄마〉

“엄마께서 뉴스를 둘었다. 우리는 엄마께 ‘엄마 6 번 둘어요’. 엄마는 ‘TV보지말고 공부해’하고 내 엉덩이를 때렸다.”(글 80)

동생을 때리지 말라면서 동생을 때린 형을 어머니는 때리고 있다. 동생에게 소리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동생에게 소리지른 형에게 소리지르고 있다. 또 아이에게는 비교하지 말라면서 어머니는 다른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고, 한결음 나아가 어머니 자신과 아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아이는 보지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아이에게 하지말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산 모델을 어머니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불공평

어머니는 불공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특히 형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생이 애교를 부려 장난하면 엄마와 아빠께서 웃으신다. 나도 칭찬을 받고 싶어 애교를 부리면 엄마와 아빠는 TV안보인다고 야단을 치신다.”(글 67)

“나는 내동생과 다투면 책임이 더 많은 내가 혼난다. 하지만 엄마께서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지혜를 미워하는게 아냐. 아직 경민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잖니? 엄마는 이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 좋아.’ 나는 그말이 진짜지 가짜지 구분이 안眬다. 속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미웠다.”(글 78)

“내가 컴퓨터 좀 할라 그러면 동생이 와 나도 한다 그리고. 않시켜주면 또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서 나는 동생이 싫다.”(글 53)

“어젯밤에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 동생도 유치원 숙제 때문에 덩달아 공부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동생이 ‘누나! 물 좀 갖다줘.’ ‘나도 공부해야 돼. 니가 갖다 먹어.’ 이렇게 싸움은 시작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수진아! 너는 니 동생이 물 좀 갖다 달래는데 갖다주면 안되니?’ ‘나도 숙제 있잖아요.’ 어머니께서는 너무 동생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글 82)

“억울하다. 누나도 잘못한게 있는데 나만 혼낸다. 그리고 속상하고 또 열받는다. 어른들은 무조건 남자니까 참아라, 크니까 참아라, 동생이니까 참아라, 무조건 참으란 얘기다. 난 참지않는 성격이라 매일 혼난다. 왜 누나는 안혼내는지 화가난다.”(글 118)

“밤에 누나가 먼저 놀려서 나도 돼지라고 놀렸다. 그래서 누나가 때렸다 나도 때렸다가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었다. 엄마가 돌아오자 경곤이 왜 싸웠서하면서 흐자순으로 엉덩이를 많이 때렸다.”(글 80)

글 67과 글 78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동생은 칭찬하고 자신은 야단만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말로는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말이 진심인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또 글 53과 글 82에서는 분명히 동생이 형제간 문제의 원인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윗 형제를 혼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동생편을 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글 118과 글 80에서는 누나도 분명 잘못한게 있는데 엄마는 자신만 참으라고 한다는 동생의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3) 어른답지 못한 행동

또 어머니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아이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유아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아이에게 야단치는 행동과 벌이 무관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나가라고 하는 엄마〉

“시끄러, 나가서 들어올 생각 하지마. 하셨다.”(글 43)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 오늘 좀 늦는다구. 하지만 엄마께서는 나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나에게 화를 버럭내며 나가라고 하시지 뭐야. 그땐 정말 놀랐어.”(글 2)

“오락실에 간 걸 아시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밖에서 기다리다 추워 친구네 집에 갔다.”(글 38)

〈고자질하는 엄마〉

“엄마는 아빠께 00는 79점 맞아왔어요.라고 하는 거야.”(글 10)

〈잘못과 무관한 벌을 주는 엄마〉

“야단을 칠때마다 그날 사온 옷을 안준다고 조건 까지 불이셨다.”(글 56)

엄마는 마땅하게 갈 곳도 없는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나가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아이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는 어른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동생을 때린 것하고 새옷 입는 것과는 무관하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고 있다.

4) 일방적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적용하는 규칙은 아이의 동의없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학교수업 끝나고 재능아반 갔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에어리언이야 뭐야? 학교수업 끝나고, 교육청 재능아반 갔다가, 서예학원 갔다가, 속셈학원 갔다가, 피아노학원 갔다가, 또 집에 도착하면 8시 정도 되는데, 밥먹고 숙제하고 가방챙기면 금방 10시, 또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어쩌지하면 11시~12시, 또 6시에 일어나서 굿모닝 팝스 듣고. 내가 잘되라는건 알아하는데. 나 좀 살려줘.”(글 17)

“작년부터 아름아리 교재를 풀었는데 밀린 것을 엄마가 알아챌 때마다 매를 맞았다.”(글 51)

“난 공부가 질색이다 어른들은 왜 내 마음을 알 아주지 않는 걸까?”(글 66)

“나는 그때부터 생활영어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했다. 나는 그게 엄마께 둘째날까 봐 조마조마했다.”(글 83)

〈평균 95점이 넘어야한다며〉

“시험을 보았는데 평균 60점을 받아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글 37)

“79점이 뭐냐며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거야.”(글 10)

“평균 95점이 넘어야한다며 야단을 치신다.”(글 82)

공부, 과외, 학원보내기 등 모두가 아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이런 것들이 하기 싫고, 안하면 매를 맞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자녀의 성적과 관련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이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어머니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요구수준에 준해서 혼내고 때리고 야단을 친다. 60점을 받은 아이는 60점이라서, 79점을 받은 아이는 79점이라서, 또 95점을 넘지 못한 아이는 95점을 넘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 하는대로,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야단을 맞고 있다.

5) 노력보다 결과

이상과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결과가 우선시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노력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게 된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트집을 잡는게 정말 기분 나빠.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공부하라고 야단을 쳐.”(글 20)

“시험을 보았는데 평균 60점을 맞아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그땐 나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땐 정말 우리 엄마를 이해를 못했어.”(글 37)

“매일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돼. 엄마한테 1학기 시험점수를 말씀드렸더니 왜 이렇게 못봤냐고 소리치셨어.”(글 48)

“나는 시험을 못볼 때 맞는다. 더욱 잘하려고 노력은 한다. 하지만 어떨땐 시험을 못볼 때가 있다.”(글 58)

“내 동생을 업어줄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내동생이 울었다. 나는 내 동생을 즐겁게 해주려다 그만 혼이 난 것이다.”(글 72)

“내가 무슨 일이든 거의 내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어. 결과가 잘 안나왔을 때 엄마는 결과만 보고 야단치는 것 같아.”(글 89)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어머니는 도와주려고한 심정도 모르고 혼냈을 때 싫다.”(글 99)

시험을 못봐서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아이 자신은 잘 할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다. 노력이 중요하나? 결과가 중요하나?에서 엄마는 노력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하려는 노력보다도 시험점수가 얼마가 나왔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결과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동생을 즐겁게 해주려는 최초의 의도는 무시되고 넘어진 결과만이 중요시된다. 동생을 봐주지 않아도 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논리다. 또 어머니를 도와주려한 동기는 무시되고 그릇을 깨 결과만으로 혼이 난다.

3. 아동의 반응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반응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어머니를 〈밉고 싫

다〉〈무섭다〉라고 했고, 그때의 기분을 〈머릿속이 텅 빈다〉〈비참하다〉〈집나가고 싶다〉〈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생각대로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충전기와 충전지〉로 생각하며, 어머니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는 〈훌륭한 사람되어〉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생각의 끝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용서를 빈다〉〈건딜면 때린다〉라는 두가지 행동양식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지배하는 입장이 되고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밉고 싫다〉

“나는 그런 엄마가 싫고 미워서 혼자 엄마에 대한 이야기나 혼난 주제로 글짓기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집에 모아 두었다가 너무 화가 날때는 그것을 빨간색 펜으로 덧글씨를 쓴다. 그 이유는 빨간색 펜으로 글씨를 쓰면 저주가 걸린다고 했기 때문이다.”(글 47)

“엄마가 일부러 나를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때리는 것은 아닌줄 알지만 미워지고 싫어지고 귀찮아진다.”(글 106)

“잘못했어도 모두 밉고 세상이 싫어진다. 또한 어머니를 호통치고 싫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고 싶다.”(글 110)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글 29, 71, 75)

야단치고 때리는 어머니가 밉고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 잘되라고 때리는 사랑의 매인줄 알지만 어머니가 밉고 싫고 귀찮아진다고 했다. 나아가 어머니 뿐만아니라 모두가 밉고 세상이 싫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빨간색 펜으로 덧글씨를 써서

어머니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무섭다〉

“우리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은 상상도 못한다. 너 무 무서워서이다. 난 시험점수가 나오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글 81)

“난 어머니가 무섭기도 해. 많이 때렸으니까.”(글 100)

이러한 어머니가 무섭다고도 했다.

〈머리가 텅 빈다〉

“시험날이 점점 다가오자 겁이 나기도 하였다.”(글 50)

“작년부터 아름아리 교재를 풀었는데 밀린 것을 엄마가 알아챌 때마다 매를 맞았다. 매를 맞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밀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꾸 밀리게 된다.”(글 51)

“엄마가 야단을 치시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게 되거나 내가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기억이 사라진다. 엄마가 내가 동생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라고 하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내가 아직 동생에게 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호되게 때리셨다.”(글 52)

“그러다가 하루종일 공부만 하게 되었다. 그날은 도저히 머리에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다. 온통 머리속은 백지상태가 되었고 생각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글 66)

“그렇게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글 94)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혼을 내서 아이의 혼이 나가 버렸다. 정신차리라고 혼낸 것이 정신이 나가버려 아이들은 머리속이 텅 비어 아무 것도 생

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겁이 들어와 자리잡았다. 혼이 나가버려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상실한 아이는 자신의 행동도 기억할 수 없고, 공부를 잘하라고 혼을 냈는데 오히려 시험 날이 겁나고 공부가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비참하다〉

“저이가 맞는 것 저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저이도 속이 많이 상해요.”(글 14)

“꾸중, 꾸중, 짜증나는 꾸중, 이게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 어머니의 꾸중도 잘 새겨 들었다. 하지만 엄마의 말도 한계가 있을 때 너무나 짜증이 날때가 있어.”(글 22)

“엄마가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야단맞는 것은 싫다.”(글 54)

“시험얘기를 하면 밤마다 자면서 운다. 그리고 나는 속상하다.”(글 57)

“공부를 못하는 내가 더욱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글 73)

“어쩔땐 부모님 심정을 이해할 때도 있다. 하지만 원망할 때가 제일 많다.”(글 92)

“다음부터는 안그러겠다고 반성도 한다. 그런데 조금 비참하다.”(글 95)

“이렇게 때릴거라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라고 생각한다. 속상도 하다. 한숨 자고도 싶다.”(글 119)

어머니의 의도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데 있고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에 앞서 속상하고 비참하고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아이의 잘못을 지켜봐야하는 어머니의 감정은 아이를 야단치면서 풀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실감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아

야 하는 아이는 더욱더 비참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나마 모든 것을 잊게해 주는 잠 속으로 회피하고 싶어진다.

〈집 나가고 싶다〉

“엄마! 미워. 나 집나가고 싶어!”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긴 듈다.”(글 96)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때리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집을 나가고 싶은 심정이다.”(글 110)

그래서 아이들은 집나가고 싶다고 했다.

〈죽고 싶다〉

“어쩔땐 죽고 싶기도 하고, 혼자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 또 왜 태어났을까 할 때도 있다. 혼자 방문을 잠가놓고 울때도 있다.”(글 108)

“강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었어.”(글 1)

“매일 선생님께 꾸중맞고 벌서는게 바로 나다. 그래서 선생님을 부모님을 위해 죽고 싶다. 공부시간때, 시험시간때, 친구들에게 따돌릴때, 선생님이 소리지르실때도… 선생님께서 재일 싫어하는 아이는 나인게 분명하고 봉사에 충실했어도 뭐하나? 난 아무 것도 아닌데. 이 글을 선생님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친구들은 날 따돌리고 난 죽거나 살거나 유괴당해도 괜찮은 마음이 절로 든다. 부모님께서 결혼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난 없었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꼼탱이, 융통성 없는 놈, 바보머저리, 미친놈이란 소릴 많이 듣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다. 인생이 뭐길래? 날 알아주는 사람은 내동생 뿐이다. 친구들 중 왜 친한 아이만 전학갈까? 내 마음을 잘 아는데… 나는 하도 많이 맞아서 어머니께서 뚱뚱이로 때리실 때 아퍼도 참는다. 그리고 사정없이 때리신다.

심정은 다른 애들보다 약하게 맞는가? 더 싸게 맞는가?가 궁금하다. 집안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집안청소를 도울 때 좋은때와 싫을 때가 많다. 다른 애들보다 20-30 대 넘게 맞는다. 나는 맞을 때 꼭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필요없는 존재가? 필요있나? 죽고싶다. 죽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다.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을까? 동생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또 부모님께서 싸우실 때 가슴이 아프다. 그러므로 더욱 잘해드리고자하는 마음을 같곤 하고. 꿈에서 내가 죽어 부모님께서 즐거워하는 꿈도 꾸곤 한다. 난 누굴까? 하는 생각이 많다.”(글 87)

더 나아가 아이들은 죽고 싶다고 했다.

〈충전지와 충전기〉

“나는 벌을 받아도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나는 충전지, 어머니는 충전기 같다. 내가 혼이 나서 행동을 똑바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행동이 흐트러지면 또 어머니께서 혼을 내신다.”(글 101)

“엄마한테 혼날 때는 내가 먼저 인정하고, 오히려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한때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글 2)

“항상 내가 잘못해서 혼났으니까. 지금 부모님 말씀은 나중에 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애. 항상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난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나의 단점을 찾아서 고쳐주는건 우리 엄마니까.”(글 12)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 누구 탓할 것 없지.”(글 85)

“엄마의 사랑의 매가 고맙게 느껴진다.”(글 113)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생각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입되어 자신을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어머니 말씀은 나중에 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어머니로부터 혼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기쁘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의 매가 고맙게 느껴진다고 했다. 어머니는 충전기이며 자신은 충전지여서 어머니에 의해 충전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수도 없고, 그것도 한번 충전하면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충전시켜주어야만 되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훌륭한 사람되어〉

“나중에 훌륭한 사람되어 어머니의 이 은혜 보답 할테니 어머니 기다려주세요.”(글 21)

“맞을때는 엄마께 더욱 나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잘 안된다.”(글 58)

“나도 이제부터는 공부를 남보다 더욱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글 73)

이처럼 어머니의 훈육을 수용하는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외형적인 결과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게 된다. 어머니가 결과를 중요시 하다보니 아이들도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며, 이는 특히 공부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갈등〉

“13년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정이 안드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밉기도 하지만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을래.”(글 1)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말 미워하지 않겠다구.”(글 2)

“난 엄마가 괜히 짜증을 낼 때 같이 짜증을 내. 하지만 짜증내고 나서 난 엄마한테 웬지 모르게 미안해.”(글 9)

“분통이 터지지만 지금은 그대 일을 잊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글 37)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죄송해요. 조금 서운해도 속상해도 또 짜증나도 참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야겠지.”(글 93)

“엄마 진짜 저를 사랑하여 그러시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글 19)

“밤에는 잠이 안와서 이리딩굴 저리딩굴 돌아다녔어.”(글 2)

“다시는 안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글 44)

이처럼 밉고 싫기도 하면서 동시에 고맙기도 한 어머니의 존재에 때문에 아이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는 미워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엄마가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운 감정 자체를 부정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에게 미운 감정이 생긴 것 조차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엄마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매를 때린거니까.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에 잠이 안온다고 했다.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갈등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부메랑〉

“집을 나가려고 하니 집이 그리워 그냥 집에 있었어.”(글 28)

“내가 나가면 엄마가 슬퍼하실까봐.”(글 34)

“그럴땐 어디가서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마음

내키지 않아서 그냥 혼나고 있다.”(글 55)

“난 내방에 들어와서 엄마께 옥을 해댔어.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 엄마께서 맘에 걸리셨는지 나의 멍든 곳을 어루만져주시는 거야. 그래 얼마나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몰라.”(글 10)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끝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으로 나타난다. 집을 나가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궁극적인 생각의 끝은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병주고 약주는, 때려놓고 멍든 곳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존재 때문이다.

〈용서를 빈다〉

“내가 억울하게 꾸중을 들어도 나중에는 내가 먼저 잘못을 용서빈다.”(글 103)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나는 잘못을 했으면 죄송하다는 말을 매일 말하고는 했어.”(글 23)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글 34)

“엄마가 때리는데 피하기도 하는 것이다.”(글 8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터득한다. 그 중 한가지는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이는 억울하게 꾸중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학습된 야단맞는 태도로 발전한다.

〈건딜면 때린다〉

“어머니가 싫다. 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아지고 또 무슨 일에도 짜증이난다. 또 형이나 아이들이 건딜면 때린다.”(글 102)

“며칠 전에 동생이 개겨서 드럽게 팬적이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다.”(글 33)
“동생이 날 괴롭히고 나에게 이상한 말하고 내가 열받는 말을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때린다. 엄마는 그 광경을 보면 나를 더 야단을 하신다.”(글 52)

“몇일 전에는 내가 이먼(임원)이 되었는데 잘했다는 말씀도 않해 주셨어. 또 동생이 나를 놀리는 데 엄마는 내가 잘못했다고 ‘쌍년아, 빨랑 꺼져’ 이러셨어. 그때는 내 심정이 말이 아니었어. 어땠는줄 알아. 엄마를 죽이고 싶고 씨발년아 꺼져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이 정도로 난 엄마가 싫어. 알겠지.”(글 5)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게 되는 또 하나의 행동은 어머니가 나를 때렸듯이 나도 약한 자를 때리고, 엄마가 욕했듯이 나도 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형을 죽도록 때리고 맞은 형은 동생을 팬다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열받는 말을 하는 동생을 때리는 형의 행동은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욕하고 아이는 어머니에게 욕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다.

4. 어머니에 대한 희망사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이라고. 또 어머니가 충전시켜주지 않아도 〈내 잘못은 내가 안다〉는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엄마가 고칠 점〉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엄마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

어. 나도 사람인데 기분 좀 생각해 주셔야지.”(글 24)

“나는 엄마가 나의 마음을 조금더 알아줬으면 좋겠다.”(글 54)

“도대체 내가 무슨 에어리언이야 뭐야? 학교수업 끝나고, 교육청 재능아반 같다가, 서예학원 같다가, 속셈학원 같다가, 피아노학원 같다가. 또 집에 도착하면 8시 정도 되는데, 밥먹고 숙제하고 가방챙기면 금방 10시, 또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어쩌지하면 11시-12시, 또 6시에 일어나서 굿모닝 팝스 듣고. 내가 잘되라는건 잘하는데. 나좀 살려줘.”(글 17)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아이를 사람취급을 안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기분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이해하고 있더라도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한다. 내가 잘되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나를 좀 이해해서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하고 있다.

〈내 잘못은 내가 안다〉

“나도 날 혼내주고 싶었지만 내가 날 어떻게 혼내겠니?”(글 60)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글 48)

“다음부터는 여자아이들이 흙을 뿌려도 때리지 않고 말로 해야겠다.”(글 65)

“나는 내동생을 업어줄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내 동생이 울었다. 나는 내동생을 즐겁게 해주다가 그만 혼이 난 것이다. 나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래도 나는 지원이를 돌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도를 했지만 불가능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드디어 성공을 했다.”(글 72)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했다.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도 날 혼내주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험성적 때문에 야단을 치지만 본인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아이를 때렸다고 어머니는 아이를 때렸지만 아이는 앞으로는 때리지 말고 말로 해야겠다는 성숙한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어머니는 동생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무시하고 동생을 넘어뜨린 아이를 야단쳤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배려와 도움 없이도 결국 동생을 업는데 성공했다.

〈엄마가 고칠 점〉

“난 아무리 엄마가 화난다 해도 욕하는 것은 안 좋다. 난 엄마가 그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글 61)

“공부 좀 해라. 넌 왜 행동이 느리니? 시험 좀 잘 봐라고 나를 때리거나 구박하거나 잔소리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려보니까 엄마 말을 더 만들게 되는 거라 생각 한다. 엄마들은 우리를 잘 타이르면 우리도 엄마의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글 84)

“우리를 사랑하고 나쁜 마음 물들게 하지 않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뉘우치면 기분이 좋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점을 알려주면 더 화가 나고 속상한다.”(글 90)

“말로 하면 되는데 야단을 치니까.”(글 93)

“동생은 동생답게 야단치시고 나는 나답게 야단 치시면 좋겠어요. 나는 야단을 맞기 싫으니까 되도록 안 때리면 좋아요. 내 동생은 내가 관리할께요. 저도 때리지 마세요.”(글 104)

“애들은 왜 꼭 부모님이 하자는대로 해야하며 왜 그렇게 안하면 혼나는지 모르겠다.”(글 108)

“아무리 평화스럽더라도 애들한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엄마들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글 109)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잘못은 스스로 고쳐나갈 테니 오히려 어머니의 이런 점은 고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대상이 힘이 약한 아이라고 해서 좋은 말로 하지 않고 욕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하면 엄마 말씀을 잘 들을 텐데 때리고 구박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반발이 생겨 더 말을 만들게 된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어머니 방식대로만 강요하지 말고 평화스럽고 민주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고,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말하고 있다.

IV. 논 의

1. 논의를 위한 이론적 관점

우리 전통가족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嚴親慈母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어머니는 자녀가 잘하면 칭찬해 주고 잘못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자비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嚴親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慈母라고 하며, 이러한 부성의 두려움과 모성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아동의 인격의 기본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이계학, 1991).

서구 문화에서도 Parsons는 아버지의 도구적인 역할과 대비시켜 어머니의 역할을 표현적인 역할이라 했고, Winch는 아버지의 통제적인 역할과 대비시켜 어머니의 역할을 양육적인 역할로 표현하고 있다(Bigner, 1986). 즉 아버지의 다소 엄하고 통제적인 역할과 어머니의 온정적인 역할

의 조화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 주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인격의 바른 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통해 사랑의 정감을, 위엄을 통해 두려움의 정감을 최대한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는 嚴父慈母의 원리는 문화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부성과 모성의 자연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재은외, 1997).

이와 같은 기본이념 하에 동서양은 각각의 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가정교육의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에서는 이러한 嚴親慈母의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12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으며(정옥분외, 199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구 사회에서도 아동에게 해가 되는 교육, 즉 독성교육(Poisonous Pedagogy)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모역할을 제시하고 있다(Miller, 1988).

먼저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에서 방법적 원리로 중요시했던 12덕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자신을 같고 닦는 修身,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방법적 원리는 模範을 보이는 것이며, 부모로서의 責任을 중시하며,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 온갖 精誠을 다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牺牲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자녀를 가르치는데 있어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忍耐를 가지고 지켜보며, 엄격하고 자애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嚴親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녀를 尊重하고 자녀에게 關心을 보였다. 또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고, 자녀에 대해 寛大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하였다.

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바로 아이들의 성장에 해가 되는 독성교육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감정을 금하면 자녀가 미워지므로

부모의 감정표현은 죄가 아니며, 부모의 감정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하며,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부모는 아이의 주인이며, 부모는 아이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정할 뿐 아니라,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며, 자녀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아이의 의지란 발견되는 즉시 부숴야 하며, 순종을 통해 아이는 강해지며, 아이의 높은 자긍심은 해롭고, 낮은 자긍심이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또 부모의 관대함은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다. 아이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아이는 부모나 신에게 대를 수는 없으며, 부모는 언제나 옳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아이가 어릴적부터 주입되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Miller, 1988).

이러한 것이 아이의 성장에 해가 되는 독성교육이라면, 바꾸어 말하면 아이에게 유익한 교육이란 부모의 감정표현도 자제하고 아이의 감정도 수용해야 하며, 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하고 아이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이에게 관대해야 하며,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야 하며, 아이가 지적하는 부모의 잘못도 기꺼이 수용해야 됨을 의미한다. 바로 우리의 가정교육 12덕목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가정교육 지침이 비록 어머니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자녀양육의 주체자가 아직까지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동서양의 가정교육의 지침에 근거해 아이들의 글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아이 자신을 보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시각

어머니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낫추어보고 있

었다. 이는 아이를 하나의 객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귀하게 키운 자식이 귀하게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녀에 대한 존중심은 우리 선조들의 보편적인 자녀관(정옥분 외, 1997)이었다. 동시에 서구사회에서도 이러한 존중의 개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으며, 존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남도 존중할 줄 안다고 했다.

아이를 기본적으로 낮추어보고 있는 어머니는 아이가 스스로는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며,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길게 반복해서 아이에게 말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을 잔소리로 표현했다. 진정으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말이 되어야하는데 단순한 소리로 되어버렸고, 그 중에서도 ‘잔’소리가 되어버렸다. 하늘의 소리이며, 성스러운 소리이며, 귀한 소리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고 있다. 왜 잔소리라고 표현했을까? 어머니는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하여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길게 말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이를 과소평가하여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하니 이는 귀담아 들을 필요없는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한번 혼내면 짧게 끝나는 적이 없다. 밤새도록 혼내고 때리면 명이 들게 때린다. 아이를 때리면서 우리는 애써 ‘매(spanking)’와 ‘구타(beating)’가 다르다고 구분짓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일직선상에 있는 현상이다. 매가 구타보다는 가벼운 것이라 해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모멸감을 누르느라고 애쓰는 고통은 구타와 다를 바가 없다(Miller, 1988). 야단을 맞아도 마찬가지이다. 때로 치고 매를 맞는다는 말처럼 야단도 치고 야단을 맞는다고 했다. 매는 몸을 때리고 몸으

로 맞는다면, 야단은 마음을 때리고 마음으로 맞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

이처럼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지도, 아이가 하는 어떤 설명을 듣지도 않는다. 아이는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맞는다. 마치 몇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아무런 사전 주의나 감정의 교류도 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때린다. 어머니는 아이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라고 때리지만, 왜 맞는지 이유도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은 매가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아이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 매맞기 전의 감정도 무시되지만 그 이후의 감정도 눌러야 하며 그 어떤 반응도 억제해야 한다. 감정의 유일한 출구인 눈물도 억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혼난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영원히 내 아이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따로 떨어진 하나의 객체로 아이를 수용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어머니는 아이의 세계와 어머니의 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축을 가지고 마냥 팽배해 가기를 원할뿐, 아이가 다른 축을 갖고 나름대로 성장해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자기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반응하는게 허락되지 않고, 부모가 그 특유의 눈빛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울음, 성냄, 슬퍼함)을 받아주지 않고 통제한다면 아이는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 아이가 침묵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바라는 바이나 이후에 병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아이가 당한 상처, 모멸감, 고통 등을 표현하는데 철저하게 통제를 받은 경우 이러한 감정들은 무의식 세계에 내재화되고 이후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Miller,

1988).

또한 어머니는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혼자 자기를 꺼려하는 아이를 혼내고 있다. 그러면서 성장해서 처녀티가 나는 아이에게 치마를 입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아이를 혼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장해서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이를 꾸중하고 있다. 너무 성가시게 어머니에게 달라붙어도 싫고, 동시에 영원히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내 아아이로 남겨두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어머니의 훈육방식

이러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시각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어머니는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제관계에서 우애있게 지내라는 것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상황에서 형이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으로 자식이 잘되라고 하는 교육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있고,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동생을 때린 형을 파리채를 들고 욕설을 퍼붓고 야단을 치고 있다. 즉 공격성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격성의 산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TV를 보고싶은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아이에게는 보지말고 공부하라고 하며, 비교하지 말라면서 자신과 아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우리 전통 가정교육에서는 실제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뿐인 교육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수범의 원리를 제일로 하였다(정옥분

외, 1997). 또한 사회학습이론도 바로 이러한 주변환경을 통한 모방의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는 특히 형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에 대해 어머니가 어느 한 편을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때로는 동생편을 들어주고, 때로는 언니, 누나, 오빠편을 들어주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글에 나타난 바로는 형제간의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동생인 경우가 훨씬 많은 반면, 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손윗형제를 나무라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생을 즐겁게 해주려다 실수를 해도 혼이 나고, 책임이 더 많으니까, 혹은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혼이난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도 책임이 더 많은 손윗형제인 자신이 혼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편애다. 손윗형제인 자신이 더 책임이 많으니까 혼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머니의 불공평한 태도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형하고 싸우면 평소의 몇배나 혼이난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싸우면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글 74의 표현처럼 우리는 항상 싸우지 말고 우애있게 지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형제간의 갈등을 중폭시키는데는 이들간의 관계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 어머니 자신도 한 뜻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우애있게 지내라고 개입을 한 어머니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형제가 미워지고 어머니가 미워진다고 했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어머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형제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생이 얄미워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힘 행사하기에서 진 아이들이 동생을 때리

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Dreikurs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어머니에 대한 관심끌기에서 비롯된 동생과의 불화는 힘행사하기 단계에서 자신보다 큰 힘을 가지고 동생을 때린다고 매를 때리는 어머니에 의해 좌절된다. 힘 행사하기에서 어머니에게 진 아이는 동생을 때리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반항적 순종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Dinkmeyer & McKay, 1990).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장자로 가계가 계승되고 상속에서도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 원칙이었다. 또한 兄友弟恭의 교육적 원리가 생활화되어 ‘형된 자를 경하면 아우들이 기뻐하고’라는 효경의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동생은 마땅히 형을 공경하고 형은 아우를 우애있게 대하는 것이 인간 교육의 기본이었다(김재은외, 1997). 그러나 사회변화로 자녀들간의 지위가 균등해짐으로 인해 이러한 兄友弟恭의 교육적 원리는 변색되어 형에 대한 공경보다는 아우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글에는 나타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어른답지 못한 것이 많다. 마땅하게 갈곳도 없는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나가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아이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유아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이 고자질을 할 뿐만 아니라 형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의 말을 듣고 형을 벌준다. 자신의 고자질로 인해 형이 혼나는 것을 본 아이는 조그만 일도 고자질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고자질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된 태도를 보인 것이 된다.

또 야단치면서 그날 사온 옷을 안준다고 한다. 아이의 잘못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와는 무관한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아이에게 주어지는 벌이 문제행동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벌이 문제

행동에 촉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한 아이에게 촉점을 맞추고 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지은 아이를 미워하는한 우리는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이의 훈육과정에서 적용하는 규칙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아이가 결정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공부, 과외, 학원가기는 어른의 시각에서 필요할 뿐 아이는 질색이라고 했다. 이러한 것들이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아이가 지고 감당하고 있다. 어머니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에 부수되는 감정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했는지?는 상관이 없고 안했을 때 야단치고 때리기만 하면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어머니의 훈육태도는 ‘다 너 잘되라고’라는 논리에 합리화되어지고 그러한 잘됨의 기준은 의형적인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력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aget는 도덕적 자율성과 실재론의 단계구분의 중요한 근거로 행동이면의 동기를 중요시하는가? 행동의 결과를 중요시하는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은 10세경이면 결과보다는 이면의 동기를 중요시하는 도덕적 자율성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한다(조복희외, 1997). 그러나 성인기에 접어든 어머니가 이처럼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사회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 가운데 하나는 홀륭한 여성상은 곧 홀륭한 어머니상과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가부장제의 조선사회에서 이육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나 한석봉의 어머니가 후대에까지 알려진 것은 아들을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인물이라는 기준은 학문을 열심히 익힌 결과로써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누구든지 학문을 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학문을 통해 인격의 바른 틀을 자녀에게 형성해주는 것이 가정교육의 핵심(김재은외, 1997)이었던 당시사회의 기준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아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다는 것은 곧, 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잣대가 되며 대리성취나 만족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어머니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고, 사회참여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보다 극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것이 딸에게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에게 인격의 바른 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며, 대학입시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뿐이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밥을 안먹어도 배가 부르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좋은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것은 훌륭한 어머니를 가늠하는 외형적인 잣대이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아동의 반응

아이들은 앞서와 같이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어머니가 밀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

어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빨간색 펜으로 덧글씨를 써서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엄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게 야단맞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감정을 보이는 것도 금지되었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참는다고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화되었다가 이후에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머니가 무섭다고 했다. 慈母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嚴母의 모습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어머니로부터 혼이 난 아이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혼이 나가버리고 그 자리에 겁이 들어오고 어머니의 혼이 대신 들어와 있는 것이다. 사실상 겁이 날것도 없는데 자신의 혼이 나가버리고 그 빈자리에 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섭고 시хват이 무서워진다. 또 아이들의 자아는 상실되고 어머니의 자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입시키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부를 할려면 혼이 들어가야 하는데 혼이 나갔으니 생각이 없어진다. 혼이 나가서 기억도 안나고 사고력을 상실한 텅빈 상태에서 다시 혼이 나는 것이 무서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혼이 담기고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머릿속이 텅빈 것 같고, 비참하고, 집나가고 싶고, 죽고 싶다고 했다. 물론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가르침은 필요하다. 즉 자식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목적은 좋으나 그 방법이 문제이다. ‘미운 자식 떡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한번 더 때린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나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솔로몬

왕의 말처럼 어머니는 체벌이나 야단이 곧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훈육방법의 사용으로 체벌한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체벌의 목적과 아이의 행동 변화와는 괴리가 있게 된다. 설사 잘못된 행동 자체는 교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벌로 인한 자존감의 손상,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고, 죽고 싶은 더 큰 부작용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의도는 자식 잘되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자신들의 생각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가출하고 싶고, 죽고 싶다고 했다. 자식 잘되라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라고 했던 어머니의 질책이 막상 가출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보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소한 감정표현도 금지되었던 아이들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싶은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출이나 자살도 감정표현의 한 방법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표현이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벌을 줄 때 일체의 감정표현도 용납되지 않았고, 풀리지 않은 감정은 내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은 계속 쌓여 가출이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가벼운 체벌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써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우리 대부분이 몇대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경험은 너잘되라는 논리하에 실제로는 아이에 발달에 부정적인 독성교육(poisonous pedagogy)을 이겨나간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비정상적인 성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

넘겨주게 되는 보균자일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이나 성적비관이나 공부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는 청소년기라는 시기자체의 문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글을 통해 우리는 아동기에서부터 아이들은 이미 가정내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가출하고 싶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상 나가고 싶어도 집이 그립고 용기가 없어서 못나갔고, 죽고 싶어도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청소년기라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문제를 보이리라는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행동의 중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린시절에서부터의 어머니와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이의 자존심까지 손상시켜 가면서 그래도 너 잘되라고 그런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교육적 허구에 불과하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관계를 회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으로써 미래의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가발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가 채워 주어야 되고 충전시켜주어야 움직일 수 있는 피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말씀은 빠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이므로 기꺼이 수용하고 어머니의 사랑의 매를 고맙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우리는 “다 너 잘되라고 때리지 미워서 때리냐?”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매라는 말을 사용한다. 성장과정을 통해 이러한 말들을 수없이 들어온 아이들은 어

머니의 훈육은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잘 듣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동시에 어머니가 결과를 중시하듯 아이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워할 수 없는 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아이들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어머니는 무섭고 미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미워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한 어머니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미워서 그러냐? 다 너 잘되라고 그러지.’라는 말에 끊임없이 세뇌되어 온 아이들은 죄의식이 내면화되어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 ‘모두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라고 불리는 독성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는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때로는 부모의 그러한 태도가 우리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하게 된다.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신의 한맺힌 감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식이 있었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당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처벌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너를 위해서’라는 논리에 의해 우리 부모에게 잘못 취급되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를 이상화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것을 우리 자녀에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Miller, 1988). 부모는 항상 옳고 부모님의 체벌은 사랑의 매라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엄마와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후 몇 개월간의 경험이 내면화된 결과이기도 하며, 그 이후에도 아이의 생존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으므로 아이는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잊어버리거나 이를

이상화하게 된다. 아이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이 내면화되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하고, 이와 동시에 사랑의 매라는 우산 속에 안주해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싫고 밉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해서 때리는 매는 누구를 내쫓는 매가 아니라 더 따뜻하게 끌어안는 매이어야 한다. 때리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맞는 사람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일 때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다(김수환, 1994).

우리 전통가정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생활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말중심의 자녀교육을 철저히 배격하고 삶의 체험을 통해 인격의 바른 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가정교육에서 나타나는 너 잘되라고 그런다는 어머니의 말과 실제 훈육행동간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아이들간에 감정의 벽을 만들어 놓고 만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그러시는 것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운 어머니면서 동시에 죽이고 싶도록 밉고, 천사-VS-마귀(글 25)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두 얼굴의 어머니로부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집을 나가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그 생각의 끝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과 같다. 이는 병주고 약주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관계가 있다. 아내를 때린 후 사과하는 남편의 심리와도 유사하다. 매맞는 아내가 구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고 자라서 매에 대한 참을성이 생긴 경우, 앞으로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경제력이 없어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 집을 뜯나가고 이혼을 못 하듯이(옥선화와 정민자, 1992)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헤어질 용기를 갖지 못해 다시 가

정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일단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용서를 비는 것이라고 했다. 비록 억울하게 야단을 맞을지라도 빨리 비는 것이 어머니의 화를 가라앉히는 철흥이라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빨리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孝의 개념과는 상치된다. 전통적으로 孝라면 무조건 부모의 행동을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도 있으나, 참된 孝는 부모의 잘못을 간곡하게 간하고 부모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데 있다(정옥분외, 1997)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가 화가 나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가차없이 때렸듯이, 나도 화가 나거나 동생이 잘못하면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학습하게 된다. 부모가 너 잘되라고 때렸으니까 나도 동생이 잘못하면 때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자기합리화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힘의 차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다시 나타나게 되며, 자기 자녀, 부하 직원, 학생들에게 되풀이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맞고 때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원폭력을 가해자 학생만의 잘못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려 하지만, 바로 이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배워온 하나의 힘의 논리이다.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힘이 없으면 맞아야지의 논리가 같은 동료집단에 적용된 것일 뿐이다.

5. 어머니에 대한 희망사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고파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대접 못받고 인간처럼 살지 못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또 에어리언처럼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자유의지가 없는 충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아이자신은 그럴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으나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기잘못 자기가 안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보다 훨씬 성숙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는 성장 과정에서 위협적인 존재일뿐 자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하지만 아이는 도움없이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아이는 모르고 어머니는 잘 아니까 당연히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 스스로가 보는 자신의 모습은 어머니와는 상이하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내 잘못은 내가 안다고 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부모세대가 다시 들여다보고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고쳐야 할 점을 말해주고 있다.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배워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가 화난다고 형을 때리지 않으면 형도 화난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면 안된다는 논리를 알게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글들을 통해 엄마에게 야단맞은 경험에 대하여 아이들의 진솔한 느낌이나 생각을 접할수 있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큰 가치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글들은 머리로 꾸며낸 글짓기라 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꾸밈없이 써 내려간 글쓰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솔직한 표현을 통해 아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그치만 니가 있었기에 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지. 니가 없었다면 벌써… 어휴 상상도 하기 싫다.(글 1)”, “하소연을 하고 싶은게 있어.(글 6)”, “내 비밀을 너에게 털어놓겠어.(글 10)”라는 표현에서처럼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낸 글을 통해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마음 속에 있는 불만이나 갈등을 정화시킬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이 글을 어머니가 보시면 안된다고 했다. 정작 이를 보고 반성해야할 어머니가 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이고 고마운 감정만으로 꾸며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어머니의 책임은 막중하고 동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글들에서 아이들이 묘사한 어머니의 훈육태도는 이러한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본래의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난 부분이 많았으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를 알고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린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혼을 넬때도 밤새도록 혼내고, 무설명, 무경청, 무반응의 태도로 일관한다. 동시에 아이의 감정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며, 영원히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아이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

둘째,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며, 불공평하며, 어른답지 못한 유아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훈육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며, 아이의 노력보다도 결과를 중시한다.

셋째,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머니가 밉고 싫고, 무섭기도 하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비참하고, 집나가고 싶고, 죽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며 어머니처럼 결과를 중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싫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어머니에 대한 상반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그러나 그러한 갈등의 끝은 어머니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척경은 빨리 용서를 비는 것이며, 동시에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면화시키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벌을 주려고만 하지말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또 내 잘못은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어머니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간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아이들은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는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아이들 편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무조건 어른 말을 잘 들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훈육과정에서 어머니는 가능한 짧게 말하고, 아이에게는 상대방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나 전달법’이나,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반영적 경청’의 태도는 부모 교육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너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다는 태도를 아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Faber, 1980). 부모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의 감정반응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가출이나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자기표현의 방식을 택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또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어머니 자신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때리는 모범을 보였듯이 아이도 배워서 동생을 때렸고, 소리치르는 어머니를 통해 소리치르는 행동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면 이렇게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세대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무능력하지 않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 스스로가 어머니가 나를 때리지 않으면 나도 동생을 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성숙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의 글을 통해 우리는 부모로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켜보

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밉고 싫고 무서운 모습으로 아이에게 부각되었는가를. 아무리 사회가 변화한다고 해도 훈련은 가정이 갖는 중요한 교육적 기능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가정내에서의 훈육의 목표의식부재에 있다. 훈육의 목표를 성숙한 시민으로서 남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사회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출세해서 남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재은외, 1997). 이처럼 이후의 결과만을 향해 아이를 몰아붙이는 어머니가 무서울 수밖에 없다. 이는 자녀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훈육을 하고 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도덕적 훈련자로서의 아버지의 기능상실 및 가정내에서의 위상격하와도 관련이 있다(정순화와 김시혜, 1996). 그래서 아버지보다 무서운 어머니로 표현되는 것이다. 아이는 어떤 때는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좋다고 했다. 또 우리는 자식보다 손주가 더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접한다. 바로 이 말은 어머니는 자녀를 좋은 결과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선되지만, 할머니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손주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좋은 결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후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매진하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육이지 아이를 위한 교육은 아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으려면 너를 위해서라는 논리 하에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쌍방적이고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전통 가정교육에서의 父慈子孝는 바로 이러한 쌍방적

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子孝와 父慈간에 선 후관계는 없으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정리에 근거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자식은 자연발생적으로 효를 다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정옥분외, 1997). 비록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효의 개념은 상당히 퇴색했지만, 이러한 父慈子孝의 방법적 원리는 부모자녀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를 존중하면 아이도 어머니를 존중하며, 어머니가 아이의 욕구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면 아이도 어머니의 생각을 귀담아듣게 된다는 상호존중의 호혜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상호존중의 호혜적인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형제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兄友弟恭의 가정교육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兄友는 아우의 사랑을 통해 사랑하는 심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며, 弟恭은 형에 대한 공경을 통해 경심을 함양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으로서 형이나 아우 정도의 타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는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이다(김재은외, 1997). 이러한 관계가 어머니의 개입을 통해 균형이 깨어진다면 형이나 아우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불공평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특성에 맞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엄마는 너를 제일 좋아해’라는 말 자체가 엄마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차별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보다는 각각의 아이마다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에 맞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모두가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항상 완벽한 신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부분이 비록 1%라 하더라도 이는 그 과급효과가 커서 나머지 99%의 긍정적인 어머니의상을 부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글을 통해 말해 주고 있다. 바로 우리 부모세대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점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이를 가르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잘못되어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수환(1994).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 김시혜 (1995). 현상학적 접근; 아동. 가족 연구를 위한 최신통계기법. 제 17차 한국아동학회 추계워크샵 5-27.
- 김재은, 김광웅, 이계학, 유가효, 최경순(1997). 새 시대의 가정교육 탐색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옥선화, 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 하우.
- 유안진(1994).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아동. 제16차 한국아동학회 추계워크샵 5-23.
- 이계학(1991).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 이오덕(1997).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도서출판 보리.
- 장승수(1997).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김영사.
- 정순화, 김시혜(1996). 동시를 통해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한국아동학회지, 17 (2).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한

- 국아동학회지, 18(1), 81-107.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97).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Arnold, E. (1974). Mothers in *The future of motherhood*(quoted in Jessie Bernard). New York:Penguin Books. p. 3.
- Bigner, J. J. (1986). *부모교육입문:부모자녀관계*. 이은화. 이경우(역). 서울:창지사. (원본발간일, 1979).
- Dinkmeyer, D., & McKay, G. D. (1990).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
-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이경우 (편역). 서울:창지사. (원본발간일, 1982).
- Faber, A., & Mazlish, E. (1980). *How to talk so kids will listen & listen so kids will talk*. New York:Avon Books.
- Miller, A. (1983). *For your own good*. Toronto:Collins Publishers.
- Spradl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 Winston Inc.